

89.11.30

미혼모

연령 낮아지고 학력 높아져

3百84명 실태조사

가아발생의 원인이 되는 우리나라의 미혼모들은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대신 결혼이 늦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 미혼모의 출생이 줄어든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.

미혼모의 발생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.

이같은 사실은 한국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미혼모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났다. 미혼모 3百84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

이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의 연령은 낮아지고 학력은 높아지는 추세. 미혼모의 연령은 20~24세가 45.6%였고 25~29세가 31.8%였으며 30~34세가 18.8%를 차지했다. 한편 고졸

이상이 58%나 되는데 비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26%에 불과해 「미혼모」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발생한다는 생각은 근거를 잃게 됐다.

15~19세도 19%나...高卒이상이 58%

출신지는 중도도시가 35.4%로 많았으며 전체의 55.5%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. 미혼모를 고집수입이 있는 사람은 43.8%였고 나머지는 가족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다. 수입은 20만~24만 원이 14.6%, 15만~19만 원이 15.1%, 10만~14만 원이 13.3%였다. 미혼모들의 당면문제 중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미혼모들은 결혼전에 임신했다든 사생활면에 인신침해, 타격도 크다. 임신한것을 알았을때 상대 남자의 태도를 보면 19.3%가 나태를 원했고 14.3%가

미혼모를 고집수입이 있는 사람은 43.8%였고 나머지는 가족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다. 수입은 20만~24만 원이 14.6%, 15만~19만 원이 15.1%, 10만~14만 원이 13.3%였다. 미혼모들의 당면문제 중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미혼모들은 결혼전에 임신했다든 사생활면에 인신침해, 타격도 크다. 임신한것을 알았을때 상대 남자의 태도를 보면 19.3%가 나태를 원했고 14.3%가

미혼모를 고집수입이 있는 사람은 43.8%였고 나머지는 가족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다. 수입은 20만~24만 원이 14.6%, 15만~19만 원이 15.1%, 10만~14만 원이 13.3%였다. 미혼모들의 당면문제 중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미혼모들은 결혼전에 임신했다든 사생활면에 인신침해, 타격도 크다. 임신한것을 알았을때 상대 남자의 태도를 보면 19.3%가 나태를 원했고 14.3%가

미혼모들의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미혼모들의 11.5%가 절혼을 희망했다. 미혼모들의 12.8%만이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. 미혼모들의 12.8%만이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.

미혼모들의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미혼모들의 11.5%가 절혼을 희망했다. 미혼모들의 12.8%만이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. 미혼모들의 12.8%만이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.

미혼모들의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미혼모들의 11.5%가 절혼을 희망했다. 미혼모들의 12.8%만이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. 미혼모들의 12.8%만이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.

미혼모들의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미혼모들의 11.5%가 절혼을 희망했다. 미혼모들의 12.8%만이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. 미혼모들의 12.8%만이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.

외국에 입양되거나 사생아가 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. 30일 서울 교원빌딩에서 열

린「미혼모 실태와 미연방지」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송명옥 대.李仁福 교수(한양대)는 「미혼모실태」 미혼모 자신과 태어난 아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,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미혼모를 보호·정신시키는 데서 나아가 예방하는 불행예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<鄭星姬기자>



미혼모들은 「혼전에 아기를 낳았다」는 부끄러움과 심리적 타격 외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크리스마스·年末年始을 위한 「김원희 홈 아트」공개강좌

559일 선착순 百명

「여성동아」와 「동아문화센터」는 X-MAS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실내장식에 필요한 갖가지 홈 아트, 포장요령 등에 대해 5일간에 걸쳐 공개강좌를 실시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▲기간=12월 5(월)~9일(금) 오후 2~4시

▲장소=동아일보 여의도 별관 동아문화센터 409호

▲수강료=10,000원

▲강사=김원희 (실내장식

미술가)

▲접수처=동아일보여의도 별관 4층 동아문화센터(100명 선착순 마감) ☎7114

◇만드는 물건(재료비 별도)

일 자	실 습 내 용
5일(월)	크리스마스 트리
6일(화)	전등갓만들기
7일(수)	장식용열매만들기
8일(목)	선물포장짜기
9일(금)	보충강의 및 마무리

女性 東亞·東亞文化센터